



“자유분방 캐릭터 쾌감 느껴져”

tvN ‘안투라지’ 김은갑 役 조진웅
서강준·이광수·이동휘 등 호흡

올봄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강직한 형사 이재한으로 우리를 매료시켰던 조진웅(40)이 괴팍하고 거만한 연예기획사 대표로 돌아왔다.

조진웅은 인기 미국 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tvN 금토극 ‘안투라지’에서 스타 차영빈(서강준 분)을 키운 소속사 대표 김은갑을 맡았다.

미국 HBO 드라마 ‘안투라지’(Entourage)는 화려한 할리우드의 속살을 유쾌하게 드러내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판은 정상의 인기를 구가하는 배우 차영빈(서강준 분)과 세 친구들, 차영빈 소속사 대표 김은갑(조진웅)의 다사다난한 일상을 그려낸다. 차영빈의 세 친구로는 1990년대 반짝 스타였던 차준(이광수), 차영빈 매니저로 일하는 이호진(박정민), 인터넷 방송 진행자이지만 실상은 백수에 가까운 거북(이동휘)이 등장한다.

“안투라지” 원작의 인기를 견인한 인물이 연예기획사 대표 아리 골드였던 만큼, 조진웅이 짙어진 무게도 적지 않다.

첫 방송(11월 4일)을 앞두고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안투라지’ 제작발표회에 등장한 조진웅은 매우 자신만만한 모습이였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캐릭터예요. 제 캐릭터를 생각하면 마음이 ‘포아아’처럼 바뀌어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주는 쾌감이 대단한데, 시청자가 드라마를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김은갑은 정글과도 같은 연예계에서 바다부터 시작해 특유의 추진력과 사업수완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른 인물이다.

“먼저 스타 만들고 나서 진짜 배우를 만드는 게 내 전략”이라고 외쳐대는 김은갑은 악당처럼 보이지만, 매니저로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다 은근 속 정도 깊다.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한 조진웅은 자신이 몸담은 연예계의 빛과 그림자를 그리는 작품에 출연해 감회가 새로운 모습이였다.

“안투라지”라는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서 느끼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감독

에게 출연을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소속사 대표가 제게 했던 이야기가 이 작품에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대표님이 그때 나를 달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안투라지’ 흥행을 위해 누군가에게 카메라 섭외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분노 때문에) 집에 다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찢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 순간 “내가 과거 (출연) 거부했을 때로부터 거부당했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했다.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던 조진웅은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많이 흥분하고 고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캐릭터를 보내기 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이 상태로 다른 곳에 가면 미친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작품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즐겼는데 저처럼 시청자들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우 PD는 “원작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자극적인 부분이 주는 재미도 있지만, 할리우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점과 ‘셀프 디스’를 통한 블랙코미디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판에서는 원작의 ‘브로맨스’(남자들간의 우정)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더 강화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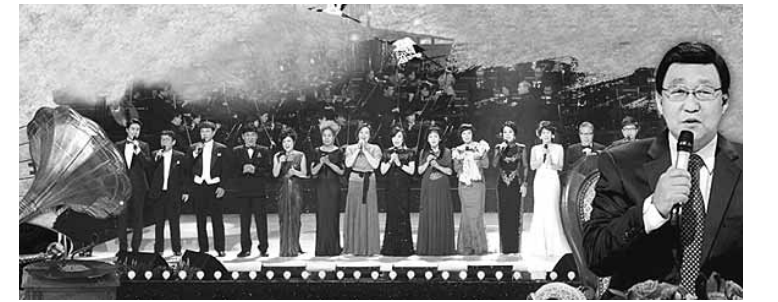
가령 원작에서 소속사 대표로 등장하는 아리 골드(제레미 피번)가 “매력은 넘치지만 미친” 인물이라면, 김은갑은 “성격이 지랄 맞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인물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안투라지’는 “마냥 따뜻한 이야기는 아닌, 톡 쏘고 까칠한 느낌의 드라마”라는 게 대본을 맡은 서재원 작가의 설명이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안투라지’가 묘사할 한국 연예계 풍경이 어느 정도 현실과 닮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배우들은 일제히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이동휘는 “작가들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줄 걸로 믿었다”면서 “차영빈, 차준이라는 배우가 실제로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이었다)”고 전했다.

이광수도 “제작진이 사전 취재를 많이 해서 연예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드라마에 담겼다”면서 “저희가 제작진과 식사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도 대본에 녹아들었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구르미’ 떠난 자리 ‘가요무대’ 1위

‘제자저하’ 박보검이 퇴장하고 나니 월화극이 다시 ‘가요무대’에 시청률 왕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25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시청률 대결에서 KBS 1TV ‘가요무대’가 10.1%로 1위를 차지했다.

시청률 20%를 넘나들며 인기를 얻었던 ‘구르미 그린 달빛’이 종영하면서 다시 새 판이 짜인 월화극 시장에서 3사 드라마는 모두 10% 아래의 성적에 머물렀다.

1위는 9.8%를 기록한 SBS TV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가 차지했다. 이는 지난 18일의 5.9%보다 3.8%포인트 뛰어오른 성적으로, ‘구르미 그린 달빛’ 종영의 반사이익을 누렸다.

‘구르미 그린 달빛’의 바통을 이은 KBS 2TV ‘우리집에 사는 남자’는 9.0%로 출발했다. 한동안 약력에 몰두하던 수애(37)가 180도 분위기를 바꿔 코미디에 뛰어든 작품이다.

최지우 주연의 MBC TV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8.3%로 꼴찌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월요커플 이제 볼 수 없어”

개리, 런닝맨 하차

가수 개리가 SBS TV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서 하차한다.

SBS는 25일 “개리가 음악인으로서의 삶에 더 집중하겠다는 ‘런닝맨’ 하차 의사를 밝혀 오는 31일 촬영을 끝으로 ‘런닝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개리는 올 초부터 ‘런닝맨’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밝혀왔으나 그간 제작진과 멤버들이 하차를 밀려왔다고 SBS는 덧붙였다.

“런닝맨” 제작진은 “‘런닝맨’ 원년 멤버로서 지난 7년간 프로그램에 대해 큰 힘을 다해 애써 준 개리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개리 씨가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강연 100℃ 라이브(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수목드라마 <공황가는 길>(재)	00 옥중화 (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좋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넷워킹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00 생생정보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제23회 KBS-한전 음악콩쿠르 대상선정 연주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 유니버 스페셜	00 열린 TV 시청자제상
3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2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텔레몬스터 (재) 30 리얼스토리 눈(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어서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매슬론 풋볼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코소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5 공감다큐. 사람 25 일일연속극 <별가속>	30 글로벌24 55 구석구석 숨은 돈 찾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공황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	00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인간탐구 위대한 질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그랜드캐니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 모듬전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영 유치원 1~3 08:45 최고다 호기심 천국 09:00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아버지의 귀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책과 땅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기탐험대
	15:20 꼬마키사 마이크 15:35 오솔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콩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영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명의(재) 20:40 다크 오늘 <씨씨씨와 옥희씨>
	20:50 세계테마기행 <지구의 생명을 보다, 아이슬란드 - 위대한 자연의 법칙> 21:30 한국기행 <그 산에 오르는 까닭은?> 21:50 EBS 다크 프라임 <하라산 늑대개> 22:45 극한직업 <칼집 잡는 사람들>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조종 당하게 될까?>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6일 (음 9월 26일 辛巳)
子 48년생 상대방의 대응이 있기 전에 선제함이 낫다. 60년생 현재 수가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84년생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야 공유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 46	午 42년생 진일보안이 미래를 열어 줄 것이다. 54년생 해복은 일이 처리되는 명쾌함이 있다. 66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행운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맞이하겠다. 78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9, 18
丑 49년생 길성이 비추고 있으니 경사가 나게 되어 있다. 61년생 기호와 취향이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었다. 73년생 머지않아 속개될 것이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리라. 85년생 현대에 적응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47, 61	未 43년생 임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보루로서의 충분하지만 큰 기대는 금물이다. 55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67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79년생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93, 29
寅 50년생 단순 판단한다면 외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62년생 넘치는 기쁨의 경행을 향유하게 되리라. 74년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6년생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12	申 44년생 자신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볼 일이다. 56년생 기존의 계획대로만 행한다면 이익이 따를 것이다. 68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80년생 일관된 자세로 지속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5, 06
卯 51년생 희소식을 접하는 행운이 따를 수 있다. 63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라. 75년생 마무리의 처리가 가치의 고저를 좌우한다. 87년생 걸음로는 그럴싸해도 속으로는 별짓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2, 70	酉 45년생 근본적인 동기 부여가 절실한 때이다. 57년생 늦게까지 이어지겠다. 69년생 급작스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당혹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81년생 범을 잡으려거든 범의 굴속으로 들어 가야 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4, 01
辰 40년생 진전이 있으리라. 52년생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 64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일의 경중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라. 88년생 버스 지나간 후에는 손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98, 19	戌 46년생 방해꾼이 끼어들 수도 있는 정황이다. 58년생 평소의 신뢰 관계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다. 70년생 번수가 많으니 판세를 헤아리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82년생 신임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58, 80
巳 41년생 오늘 반드시 실행하자. 53년생 상대의 청을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65년생 얼마 정도의 규모와 강도로 지속하느냐의 문제이다. 77년생 충분히 무리이었다. 89년생 더불어 살아가지고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3, 71	亥 47년생 선후를 가려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 59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71년생 절나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먹겠다. 83년생 불씨가 움트고 있다. 행운의 숫자 : 94, 77